

오피니언

다산포럼

유지나



웃음은 살아내기 힘든 삶의 명약이다.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는 물론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 효과가 있는 웃음치료는 13세기부터 시도된 의술이기도 하다. 최근 가까운 친지 세 사람이 연이어 암부병에 들어갔다. 사랑하는 그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웃음 나누기 뿐이었다.

“아무 생각 말고 코미디 보며 웃어요. 웃음이 저항력, 면역력, 치유력 모두 키워 주는 명약이니까.” 그러면서 능동 나누기를 했다. 때론 그들을 안고 울고 싶었지만 웃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어느 때보다 그들과 함께 많이 웃었다. 웃음 덕인지 세 사람 모두 건강을 되찾았다.

올해 관객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한국영화도 웃음이 넘쳐나는 작품들이다. 전반기엔 ‘싸니’, 하반기엔 ‘안득이’, 두 편 모두 고통스런 삶을 제 2의 인생으로 변형시키는 극적 상황을 웃음 속에 풀어 나간다.

진정한 코미디의 미덕은 이념이나 도덕을 내건 에토스보다는 고통을 웃음으로 녹여 내는 페이소스에 있다. 코미디의

제왕 채플린의 작품은 가난한 악자의 입장에서 권력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다. 비극적 현실을 희극적 상황으로 변형시키는 코미디 공학의 실행이다. 그리하여 권력 풍자와 장으로 코미디가 탄생하는

누가 웃음을 두려워 할까요?

것이다.

골계와 혈액으로 양반권력을 풍자하는 마당극, 절대 권력의 왕과 사제로 통제하지 못했던 유럽의 바보제, 이런 웃음 만발 난장은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 쌓인 분노를 발산하는 희합의 축제였다. ‘왕의 남자’에서도 연산군과 광대의 관계를 통해 권력의 우월과 웃음의 관계를 묘사한 바 있다.

그런데 웃음이 고소당하는 사태가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캐그콘서트의 인기 절정 ‘사마귀유치원’에서 최효중 개

그들이 ‘(집권 여당) 국회의원 쉽게 되기’를 풍자한 것이 집단 모욕의 감이란 것이다. 하하하~ 우선 웃고 볼 일이다.

개그 코미디를 사실관계 자체로 수용하시는 그분은 왜 그러실까? 궁금하다. 이 목을 끌고 싶어하신 일이라면 일단 성공이다. 게다가 이런 고소건으로 쓴웃음을 유포하며 권력과 웃음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기회를 준 기여도 하신 것 같다. 나는 이 사태를 보며 두 가지를 발견했다.

하나는 중세 수도원의 도서실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것이다. 평소 흡모하는 중세

사람들이 웃음을 즐기는 것, 그것이 곧 권력에 대한 풍자와 조롱으로 접속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민한 수도원장이 웃음을 발견한 이를 죽여버린 것이다. 마침 그는 눈먼자로 나온다. 권력에 눈먼 권력자는 웃음을 자체를 놓 견디기에 캐릭터 자체를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이 사태를 풀어내는 윌리엄 수사역은 손 코네리이다. ‘007시리즈’ 제임스 본드 때보다 품격과 지성미 넘치는 품모를 보여준 중후한 코네리의 잔영이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향긋하게 떠오른다.

다만 하나는 이 시대 웃음의 귀재 최효종의 발견이다. 이 사태를 맞아 인터넷으로 뒤늦게 찾아 본 최효종은 우울한 시대의 유머 등대이다. ‘애정남’(애매한 것들을 정해 주는 남자)에서는 남성의 솔직한 내면을 밝혀줘 남성에겐 불리할지 몰라도 여성에겐 도움을 주는 공의 유머도 탄생시켰다.

그런 점에서 그는 물질 가치에 눈멀어 불행해진 풋토를 풍자하면서 코미디 공학의 본질을 은몸과 말로 증명하는 유희꾼 인간, 호모 루덴스 결정판이다. 고소에도 주눅들지 않고 그것조차 고소한 풍자감으로 삼는 최효종의 웃음들이 기질과 ‘웃음지킴이’ 서수민 PD에게 박수를 보낸다.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공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 이 소설은 영화화하려고 중세 관련 책 한 트럭분을 읽어낸 장-자크 아노 감독의 영화에 등장하는 독특 문학 책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에코가 가장으로 지어낸 문제의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이다. 희극을 다룬 이 책에서 ‘웃음’을 다른 부분에 독약이 묻어 있다. ‘예수님도 웃지 않았다’라는 근거로 웃음을 금지한 중세 엄숙주의의 문맹자인 일반인은 물론 글 읽는 사제들도 종교권력으로 억압했다.

로 병풍을 둘러친 듯 이어진 순백의 웅장한 산봉우리들이 파노라마 사진처럼 달빛 아래 드러난다. 그 모습이 마치 무대 위에 배우가 조명을 받으며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대한 힐랄라야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한다.

날이 밝자 캠핑장에서 내려다보는 산 아래 계단식 푸른 농지가 그림처럼 아름답다. 사람들은 빛발에 들끼, 양배추, 토마토와 여러 가지 곡식을 가꾼다. 빛발에는 토종닭들이 모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집집마다 염소가 몇 마리 쑥에 뛴다. 전기 사정은 인구가 밀집한 카트만두보다 오히려 이런 산골이 더 낫다고 한다. 자연은 팜 흘린 만큼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하며 인간을 품어준다. 최소한의 문명의 혁학만으로 사는, 소박하고 건강한 삶이 어떤 것인지 네팔에서 배운다.

네팔 산골의 화장실은 우리 시골의 변소, 뒷간, 또는 측간이라고 불렸던 공간을 생각나게 했다. 수세식 변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고유의 몇 단어가 우리 언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생각이 잠깐 스쳐온 것 바로 네팔에서였다.

〈전남대학교 명예교수·파탄의대 객원교수〉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에서 예고 없이 정전이 될 경우, 기업체, 산업체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일을 피해와 손해를 생각하면 전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곳 네팔에서는 알아서 자가 발전 시설을 갖추거나 태양광을 설치하기 때문에 정전시 입는 피해를 소송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히말라야의 눈산은 가까이서 보기 위해 포카라까지 거의 6시간을 달려왔다. 다시 산길을 굽이굽이 올라가서 첫길이 끝나는 곳에서 짐을 내렸다. 한적한 곳에 텐트를 치고 이를 저녁을 먹은 뒤 모닥불을 피워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하고 막 만월을 지난 밝은 달이 떠 있는데 저 멀리 눈산은 안개인지 구름인지에 가려있다. 자정을 넘기고 구름이 걷히면서 제일 먼저 ‘마차프라파(물고기 꼬리라는 뜻)’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점차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새로운 시작을 제시한다고 한다.

그린시대를 맞아 육지 중심에서 바다 중심으로, 땅 중심에서 물 중심으로 그 동안의 중심축과 관점의 축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하듯이 넓디넓은 ‘해구’를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활용해야 할 새로운 시장이라고 제시하는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해양자원 고갈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우리나라로는 남해안과 호남권의 개발효과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다.

이런 뜻 깊은 현장에 조달청이 여수의 해안도로를 아름답게 밝힐 경관조명 계약을 체결해 며칠의 도시 여수의 아경을 더욱 빛나게 하는데 일조하였음에 뿐듯함을 느낀다.

‘기적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30만 여수시민과 5000만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만들 어낼 기적의 모습이 궁금하다. 2012년 5월 12일이 기다려진다.

〈광주지방조달청장〉

발생한다.

그럼에도 일부 운전자들이 경을 기울리고 전조등을 반짝이며 빨리 피하거나 양보 하려는 등 재촉한다면 농기계 조작이 미숙하거나 행동이 느린 노인들이 서두르다가 영락없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농촌도로에서 속도가 느리고 행동 반경이 큰 경운기를 먼저 보내거나 기다려 안전하게 운행하거나 농기계가 갓길로 완전히 들어갔을 때 추월해야 하고, 양보를 먼저 하는 운전자세가 필요하다.

▲송경희·광주시 광산구 대산동

네팔에서 온 편지 ④



박행순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는 지난 시월 중순, 3번4일의 일정으로 포카라를 향해 첫 여행을 떠났다. 차가 카트만두를 벗어나자 한쪽은 산비탈, 다른 쪽은 낭떠러지를 끝 계곡이나 강을 따라 달려간다. 백양사 계곡보다 훨씬 더 경사진 산 아래는 단풍이 전해 없어서 예쁘고 아기자기한 가을 느낌은 들지 않지만 산이 웅장하고 푸른 숲이 울창해서 또 다른 자연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었다.

가파른 산길을 굽이굽이 둘고, 도로가 좁아서 속도를 내다가는 차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난다. 인도에서 물건을 잔뜩 실은 차들이 힘겹게 비탈길을 올

소박하고 건강한 삶을 배운 포카라 여행

라운다. 네팔은 공산품으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인도에서 수입한다.

여행길에 한국 회사에서 건설했다는 수력 발전소를 지나갔다. 네팔은 전적으로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데 히말라야 눈이 녹아 흐르는 강물은 네팔을 적시고 인도 간자스강으로 흘러든다. 네팔 강우량은 단위면적당 세계 1위인데 현재까지는 제한송전을 한다. 상황과 계절에 따라 이번 주에는 몇 시간 정전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도 한다. 대용량 냉을 건설하기에는 지형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또 네팔 상류에서 수량을 제한하면 인도와 물 문제로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들었다.

지난여름, 한국에서 예고 없이 갑작스런 5시간 정전사고가 났을 때, 전국이 애단법석이고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뉴스를 전해 들었다. 네팔인들이 이 뉴스를 들으면 도대체 일 년에 5시간 정전이 무슨 대수냐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에서 예고 없이 정전이 될 경우, 기업체, 산업체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입을 피해와 손해를 생각하면 전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곳 네팔에서는 알아서 자가 발전 시설을 갖추거나 태양광을 설치하기 때문에 정전시 입는 피해를 소송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히말라야의 눈산은 가까이서 보기 위해 포카라까지 거의 6시간을 달려왔다. 다시 산길을 굽이굽이 올라가서 첫길이 끝나는 곳에서 짐을 내렸다. 한적한 곳에 텐트를 치고 이를 저녁을 먹은 뒤 모닥불을 피워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하고 막 만월을 지난 밝은 달이 떠 있는데 저 멀리 눈산은 안개인지 구름인지에 가려있다. 자정을 넘기고 구름이 걷히면서 제일 먼저 ‘마차프라파(물고기 꼬리라는 뜻)’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점차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새로운 시작을 제시한다고 한다.

그린시대를 맞아 육지 중심에서 바다 중심으로, 땅 중심에서 물 중심으로 그 동안의 중심축과 관점의 축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하듯이 넓디넓은 ‘해구’를 우리 나라와 전 세계가 활용해야 할 새로운 시장이라고 제시하는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해양자원 고갈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우리나라로는 남해안과 호남권의 개발효과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다.

이런 뜻 깊은 현장에 조달청이 여수의 해안도로를 아름답게 밝힐 경관조명 계약을 체결해 며칠의 도시 여수의 아경을 더욱 빛나게 하는데 일조하였음에 뿐듯함을 느낀다.

‘기적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30만 여수시민과 5000만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만들 어낼 기적의 모습이 궁금하다. 2012년 5월 12일이 기다려진다.

〈전남대학교 명예교수·파탄의대 객원교수〉

2012년 5월 12일, 여수가 기다려진다

기고



이성남

소설가 김주영의 작품 ‘아리랑난장’에는 “순천 가서 인물 자랑 말고, 여수 가서 돈 자랑 말고, 별교 가서 주먹 자랑 말고, 진도 가서 글씨 자랑 말고, 강진 가서 양반 자랑 말고, 고흥 가서 노래 자랑 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중 여수에 관한 이야기는 일제시대에는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단지로 부상한 여수에 자본과 사람 이 몰린데서 연유했다. 하지만 이는 여수가 항구로 제 기능을 할 때의 이야기고 지금은 옛 영광을 광양이나 목포 등에 많이 넘겨주고 말았으니 아쉬울 때를이다.

그런 여수가 ‘2012여수세계박람회’라는 호기를 통해서 옛 영광을 회복하려 하고 있

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다.

이런 축제의 장이 될 건설현장을 행사관계자의 도움으로 둘러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국내 최초 360도 관람이 가능한 아쿠아리움, 다도해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국제관, 시멘트저장탑을 재활용해 파이프오르간의 학음을 선사할 스카이타워 등이 저 멀리 오동도를 뒤로한 해 수줍은 새악시처럼 다소곳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바다 위 뉴미디어 쇼를 연출할 빅 오(Big-O), 첨단IT와 조명예술이 융합된 디자인 텔릴러리 등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었다.

엄마의 품처럼 포근하면서도 쭉빛바다의 향기가 넘치는 다도해의 항구에 건설되는 박람회현장은 한마디로 장관이었다. 현장을 둘러보는 내내 가슴속 깊이 솟구치는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일부 시설이 외국의 장인들에 의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프오르간의 경우, 아이디어는 국내에서 채택됐지만 주연대와 파이프조립 등의 주요 공정부터 시운전까지 모두 독일에서 진행됐다. 이번 여수박람회의 명물이자 향후 여수의 랜드마크가 될 작품에 100% 국내 기술력을 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을 남긴다.

하지만 2%의 아쉬움을 여수시민들의 열의가 충분히 달랠수는 것 같다.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여수시민들의 열의가 대단하다. 3개월이라는 긴 행사기간동안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기로 결의하는가 하면 자원봉사자 모집에 시민이 적극 동참해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감동시키기도 했다.

이번 세계박람회의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의 활용 중심을 땅(地) 공(球)의 ‘지구’에서 바다(海) 공(球)의 ‘해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새로운 시작을 제시한다고 한다.

그린시대를 맞아 육지 중심에서 바다 중심으로, 땅 중심에서 물 중심으로 그 동안의 중심축과 관점의 축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하듯이 넓디넓은 ‘해구’를 우리 나라와 전 세계가 활용해야 할 새로운 시장이라고 제시하는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해양자원 고갈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우리나라로는 남해안과 호남권의 개발효과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다.

이런 뜻 깊은 현장에 조달청이 여수의 해안도로를 아름답게 밝힐 경관조명 계약을 체결해 며칠의 도시 여수의 아경을 더욱 빛나게 하는데 일조하였음에 뿐듯함을 느낀다.